

제 81 호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 (강림후 2)

1974. 6.16.

순정이

발행인 김 영 일
인쇄인 함 승 천
주간 조 심 호
편집 전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601번지
가톨릭센터 내 (전화 3498)

【강 령】



성체성사에 대한 공의 회 정신과 변경된 사항

김 베드로 신부

1. 성체 희생의 의미와 목적

우리 구세주께서는 팔리시던 날 밤 최후의 만찬 중에, 당신의 살과 피로써 감사의 제사(미사성제)를 제정하셨으니, 이는 당신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십자가의 제사를 세세에 영속화하고, 또한 사랑하는 당신의 정배인 성교회에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의 기념제를 위탁하시기 위함이었다. 이 제사는 자비의 성사요, 일치의 표징이요, 사랑의 맺음이며, 또한 그리스도를 배령케 하여, 마음을 성총으로 충만케 하고, 우리에게 장래 영광의 보증을 주는 빠스카(즉 죽음에서 영광된 새 생명으로 건너가게 하는) 잔치이다. (전례 47)

2. 공의회와 공동 집전

사제적의 일치가 적절히 표현되는 미사의 사제 공동 집전은 동방이나 서방 교회안에 아직도 실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공의회는 사제 공동 집전의 특전을 다음의 경우까지 확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전례 67)

3. 미사참례의 태도

그리스도 신자들이 이 신앙의 비사에 마치 국외자(局外者)나 묵묵한 방관자인 양 참여하지 않고, 예절과 기도를 통해서 이 비사를 잘 이해하고, 거룩한 행사에 의식적으로, 경건하게,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또한 하느님의 말씀으로 육성되고, 주의 성체의 식탁에서 보양되고 하느님께 감사하도록 성교회는 이에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또 신자들은 티없는 제물을 사제의 손으로 뿐 아니라, 사제와 함께 제헌하면서, 자기 자신을 제헌하는 것을 배워야 하며, 그러므로써 중재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의 일치, 또 자기들 상호간의 일치가 날로 진밀하게 되어, 하느님께서 모든 것 중의 모든 것이 되시도록 해야 한다. (전례 48)

4. 주님과 형제들의 상통인 성체

성체의 빵을 떠어 먹을 때에 우리는 성체로 주의 몸을 나누어 받음으로써 승격(昇格)되어 주님과 결합되고 또 우리끼리도 결합되는 것이다.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이 한몸을 이루는 것이니 우리가 모두 한 빵을 나누어 먹기 때문이다." (고·전 10:17)

이렇게 우리는 모두 그 몸의 지체이며(고·전 12:27) "각기 서로 지체인" 것이다. (로마 12:5) (교회7)

5. 영성체 방법

프리멘디노 공의회에서 확정된 교리 신학적 원리를 침해하지 않고 교황청이 규정할 경우, 두가지 형태(양형) 영성체, 즉 주의 몸과 피의 배령은 주교의 판단에 따라,

* 이주일의 미사 *

(1) 개회식

□입당송 나는 내 백성에게 알곡의 진미를 먹여주고 바위 틈의 석청으로 배불렀도다.

(2) 말씀의 전례

□제1독서 (창세기 14:18-20, 경향잡지 6월호 P.24) 빵과 포도주의 봉헌.

□찬게송 ◎"너는 멜키세덱의 품위를 따라 영원한 사제이니라." "거룩한 빛 속에 내가 나던 날, 주권이 너에게 있었으니, 셋별이 뜰기 전에 이슬처럼 내 너를 낳았노라" 하시리라.

□제2독서 (고린토 전서 11:23-26, 성서 P.390) 먹고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라.

□성체송가

- 21. 천상빵인 우리음식, 자녀들의 음식이니 개에게는 주지말라.
22. 희생제물 이사악도, 빠스카양과 만나 또한 이성사의 전포로다.
23. 참된음식 착한목자, 우리먹여 기르시고 영생행복 주옵소서.
24. 전지전능 주 예수여, 죽을인생 먹여살려 영복속에 부르소서.

□알렐루야 알렐루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이니,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리라.

□복음 (루가서 6:11b-17, 성서 P.150)

모든이가 먹고 배불렀다.

□성체 감사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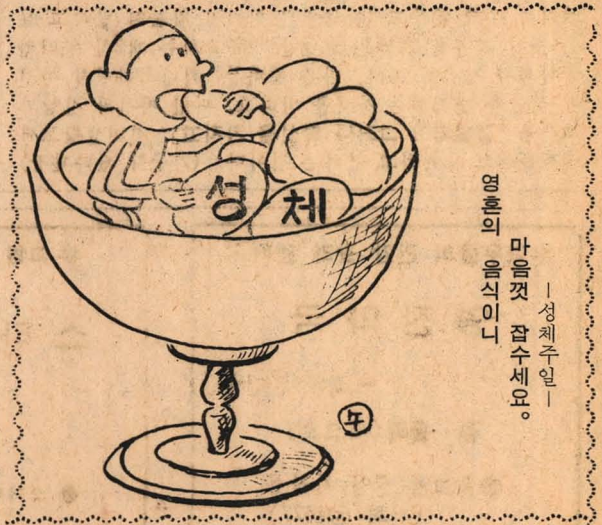
(3) 성찬의 전례

성찬식

봉헌

□영성체송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살고 나도 그 안에 살리라.

* 순정이 산책 *



【신앙인리남닉】

야훼(Jahweh) : 엘로힘(Elohim) : 여호와(Jehova)

박진량 신부

지난 번에 태평동 1가 62-10번지에 사는 「김용신」이라는 분한테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

「구약성경 시편을 보면 「여호와」를 평강히 우대하여 소위 「여호와와」의 증인」이 말하는 것이 그럴듯하게 들릴 때가 있고 답변하기가 매우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좀 해석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저희들에게 가장 큰 애로가 되는 것은 「여호와와」의 증인」이 시편을 가지고 와서 따지고 드는 것입니다. 신자 전체를 위해서도 꼭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

구약성경은 펴어나 장구한 세월을 걸쳐 수 많은 사람들이 쓴 것을 집대성(集大成)하여 만든 책이다. 구약성경의 내용을 보면 창세기 부터 예수님이 탄생할 때 까지 무려 4 천년이란 세월을 제산하고 있다. 그 동안에 헤브레아 사람들은 자기들의 하느님을 부를 때 쓰던 말도 각 시대와 계층을 따라 각각 달랐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천주(天主)님, 하나님, 하느님등 각각 달리 부르고 있듯이 말이다.

이렇게 하여 구약성경에는 같은 하느님을 뜻하면서도 각각 어감(語感: 뉘앙스)이 조금씩 다른 세가지 말들 즉 야훼(Jahweh), 엘로힘(Elohim), 여호와(Jehova) 등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 말들은 자기 특별한 어감을 제각기 갖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전문가들이 그 어원(言源)을 찾을 때 외에는 구별하지 않고 모두 하느님이라고만 알아 듣고 있다. 따라서 야훼, 엘로힘, 여호와란 말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으레 「하느님」이라고 한다.

혹시 어떤 교과에서 옛날 헤브레아인들이 쓰던 그 말 자체에다가 특별한 뜻을 부여하거나 굳이 강조하는 때는 그들 나름대로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여기에 우리 천주교신자들에게 한가지 덧붙여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날 천주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정신에 따라, 다른 종파를 적대시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변호하는 자세를 버리고, 다만 자신의 신앙과 교리를 「겸손되이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실제생활로써 증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톨릭 선타관장)

<1면에서 계속>

성직자, 수도자 및 평신도에게도 허락할 수 있다. 예컨대 서품자가 자기 서품미사 중에, 허원자가 자기 허원미사 중에, 영세자가 영세후에 즉시 거행되는 미사중에 배령하도록 허락할 수 있다(진례 55)

참조: 성체 신비 공경에 관한 예부성성 훈령, 1967. 5. 25 (중앙협의회 발행 P. 39)

6. 공의회 중 변경된 영성체전 공심제

영성체전 공심제에 관하여 여러 지방에서 많은 혼란이 있기 때문에 사제들의 요청을 관대히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보통 식사(의단식)는 사제이거나 신자이거나 영성체전(1시까지)로 하고, 이 규정은 알콜 음료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그 경우에 적당한 절제가 필요하다.

(1964. 11. 21 허가)

전주시 교동 1가 132-4

제4지구 단합 체육대회

제 4지구인 전주시내 6개본당 단합 체육대회가 금년으로 세번째이다. 여덟일과 마찬가지로 갖가지 애로를 겪으며 시작되었던 대회였다. 문제도 많았었다. 말도 많았었다. 하지만 한 해 한 해 거듭된 것이 벌써 세번을 치뤘었다.

초여름의 따거운 띄약별도 일치의 두터운 우정을 허물어 드릴 수는 없었다. 일치에 남겨 노유가 있을 수 없다. 동 동 두드려대는 북소리 하며, 덩실 덩실 돌아가는 할머니의 어깨춤을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는 없었다. 어쩌면 여기에 진정한 일치와 평화가 나태를 펼 수 있었을 것이다. 조그맣게는 내 본당의 승리를 빌며, 전주시내의, 아니 전주 교구의 단합을 기뻐하는 함성과 웃음소리는 진정한 일치와 단합의 상징이 아닐 수 없었다.

어쩌면, 바쁘고, 피곤하신 가운데에도 하루 종일 자리를 지켜 함께 웃고 기뻐하신 주교님과 여러 본당 신부님들의 그것이 우리를 더욱 기쁘게 했는 지도 모른다.

웃으면서 나눈 숫자적인 계산은 이러하다.

- 축구 결승 노송(2) : 전동(1)
- 배구 " (남) 전동(2) : 덕진(0)
- (여) 중앙(2) : 복자(0)
- 줄다리기 " 중앙(1) : 노송(0)
- 400m계주 " ①전동, ②중앙, ③덕진
- 종합 ①중앙(660점), ②전동(615), ③노송(520점)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영진약국

-조제약 전문

김을태(베드로)

☎육교열 중앙 시장통 (전화 ④4577)

교혈 여러분의 집

스타 사진관

장남수(바오로)

● 오거리동 동아여관 앞 (전화 ④6094)

☆추억의 집☆

푸른 사진관

이준영(모세)

○전동, 성모병원 건너편

전화 ④6059

「신 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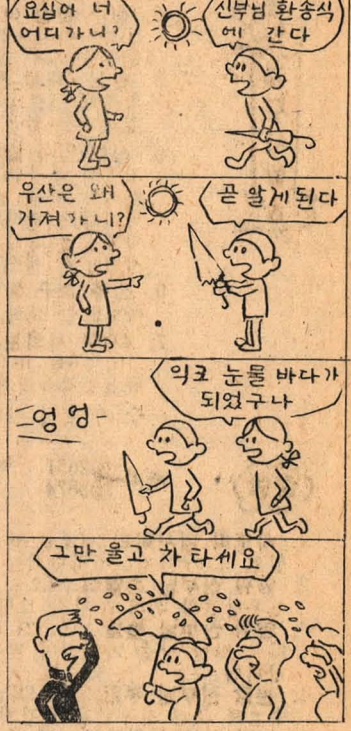
「관광지에서 생각한다」



최 신자(말가리다)

며칠전에는 속리산 관광의 기회가 있어 범주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언제 보아도 다정하고 포근한 안식을 줄 것 같은 울창한 수목은 대자연의 신비로움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국립공원답게 잘 포장된 도로며, 옆변에 들어찬 나무들을 보고 다른 산들도 저렇게 무성한 숲을 이루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과 더불어, 아름다운 자연을 즐길 기회를 갖게 된 자신이 기쁘기까지 했으며, 더구나 요즘은 관광객을 찾을때마다 가족동반의 관광객들이 차츰 늘어나는데서도 또한 호뭇함을 느꼈습니다. 무엇이든, 좋은것은 가족과 더불어 즐기고 싶은게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인줄 알고 있지만 가족끼리 즐기는 모습이 가정밖에서 보이게 될 때 한층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흔히들 관광지에서의 슬취한 부녀자들의 추태가 보도되기도 하고 부랑배의 행패를 듣기도 합니다만, 그러한 좋지못한 일은 없어져야 마땅한 것이고, 또한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가족끼리, 혹은 여러 가족 모임들의 관광이 늘어나면서 오는 좋은 부산물이기도 하다고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가족끼리의 관광이 늘어나는 좋은 풍조를 기뻐하는데 반해서 한편, 걱정스러운 모습도 있었읍니다. 젊은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보이는 등산복차림을 한 남녀 혼성팀의 관광입니다. 어렸을적에는 부모와 같이 다니는 것을 좋은 일로 생각하는 젊은이들도 그들 자신은 예외로 알아 자신들만의 등산이나 야유회를 갖고저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라는 나의 애들을 보며 저 젊은이들이 바로 나의 자식이러니, 생각하면 커다란 걱정과 불안의 구름이 가슴을 메웁니다. 남녀 그룹 등산이 그들에게 어떤 이익을 줄까? 그리고 얼마전의 대학생의 지리산 등반사고도 험담을 즐기는 이들은 그 원인이 남녀 혼합의 등반이라고 하던데...하는 생각들이 휩쓸하고 발랄한 젊은이의 모습을 호뭇하게만 볼 수 없도록 하는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건전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자연을 즐기고 정복할 수 있는 길을 주어야 하지 않나? 사회와 부모는 마땅히 그들을 선도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닐까? 사회는 사회대로, 학교나 민간기관이 주축이 되어 건전한 길로 지도해야 되려니와 부모들도 성장해 가는 자식들에게 그들의 빛과 같이 느낄 수 있는 지식의 교양, 그리고 같은 세대감을 갖도록 늘 노력해야겠고, 그러므로서 부모와의 동행이 X 적어도 부모와 상의하여 등산, 수영, 혹은 야유회를 가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끔 애아빠에게 우리는 몸도 마음도 늙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웃으며 이야기하곤 합니다. <주 부>

요십이 (48) 김병오 6.16



가톨릭 센터 프로그램 (관장 신부 박진량, 간사 안지은, 전화 ③3498)

- 매주 일요일 오후 3시...이삭회 (성경, 성가, 전전 포크송)
 - 매주 월요일 7시 반...메아리합창단
 - " 월, 화, 목요일 7시 반...일부어 교실 영어교실 매주 월~목 7시
 - " 목요일 8시... "목요일 밤에" (남녀 젊은이들의 대화)
 - " 금요일 8시...레크레이션 (주최; 가톨릭 센터와 J.O.C.)
- 시민상담실-건강, 여성, 외국, 교육, 결혼, 신앙 등 매주 월~토 밤 8~9시

좋은 책을 많이 읽으면
인생을 몇배 더 잘 살
수 있다.

✽성 바오로 서원
T.2~7398

이주간의 성경

- | | | | |
|-------|---|-------|--|
| 17(월) | 독서 (고린토후서 6:1-19, 성서P.412)
복음(마 태 오 5:38-42, 성서P.10) | 21(금) | 예수 성심 대축일
독서 (에 제 34:11-16,)
복음 (로 마 5:5-11, 성서P.346)
(루 가 15:3-7, 성서P.171) |
| 18(화) | 독서 (고린토후서 8:1-9, 성서P.415)
복음(마 태 오 5:43-48, 성서P.10) | 22(토) | 성 놀라노 주교, 성모 기념 자유, 성요한 피셔와 성 토마스 모어 순교
독서 (고린토후서 12:1-10, 성서P.422)
복음 (마 태 오 6:24-34, 성서P.12) |
| 19(수) | 독서 (고린토후서 9:6-11, 성서P.417)
복음(마 태 오 6:1-6.16-18, 성서P.11) | | |
| 20(목) | 독서 (고린토후서 11:1-11, 성서P.420)
복음 (마 태 오 6:7-15, 성서P.11) | | |

☆집필도장청부 ✽ 고급실크벽지☆

대동 페인트 상사
대동 지업사

●동문 베거리(풍남동 1가 17)
전화 ⑤5986
임 도민고(정원)

고급 선물용, 케익, 빵, 파자, 찹쌀떡
◎교우들에게 특별 할인◎

미미 제과소

상업은행 옆 ③6589

미미 예식장

남문 옆 ③3915
김민주(가타리나)

장의차·꽃상여·입관 입관부속
일체 구비

최 씨 관 집

◎ 교우들에게 특별별가 봉사 ◎
최 병 화 (그레고리오)
전주 남부시장 B동 87호
전화 ③ 6691 교활 85번

